

20. 종말론의 성서적 의미 (13 장)

마가복음 13 장 서두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붕괴/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담화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의제(議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구(舊)체제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The disciples’ question with which it begins seeks elucidation of Jesus’ pronouncement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it is this question which must set the agenda for our interpretation of the discourse which follows. It is about ‘the end of the old order’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498).

I. 마가복음 13 장 다시 읽기

A. 배경: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1. 편집구조상 4 장, 13 장 관계
 - 갈릴리(피지배지역) vs. 예루살렘(지배체제)
 - 공회 vs. 성전 => 지배이데올로기 선포 (propaganda)
2.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1-12 장)
 -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타파
 - 지도자들과의 논쟁/분쟁 => 3:28-30 (사탄의 체제); 11:17 (강도의 소굴) => 과부의 가산을 삼킴(12:40)

B. 제자들과 질의응답

1. 질문: 언제, 표적 (4 절: 어느 때에 **이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사오리이까) => 구경꾼의 입장 (남의 이야기). Cf. 800 억짜리 교회
2. 대답: 너나 잘하세요=> 대강은 알지만(그 날들) 정확한 때(그 날)은????=> 우리 이야기
 - a. 스스로 살피라 (5-23 절)
 - 살피라(βλέπετε): 5 절(주의하라), 9 절(조심하라), 23 절(삼가라) => 33 절 (주의하라)
 - 거짓 그리스도/미혹: 6 절, 21-22 절
 - b. 천지개벽—세상 권세의 몰락 (24-27 절)
 - 해, 달, 별=>권세들 (창세기 1 장; 사 13:10=>요엘 2 장); “야훼의 날”(야훼=>아도나이=>주의 날)
 - 인자(The son of man)=> vindication, 새로운 권세(=> 1:27)=> replacement of the powers
 - c. 비유,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할까? => 깨어 있으라 (28-37 절)
 - 무화과나무로부터: 자연의 이치 (일반적, 큰 그림=> 4 절, “이 일들”)---점칠 수 있지만
 - 그 날과 그 시=> 구체적, 자세한 그림=> 4 절, “표적”---모른다/없다 (cf. 8:11-12)
 - 초점=> “깨어 있으라”
 - 내게/우리에게 하는 말=> 왜? (=> 정체성과 행동윤리)
 -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앞에서, 주어진 삶/시간을 낭비함에 대한 경고

II. 성서의 종말론 개념: 어제와 오늘

마가복음 中心	근본주의/세대주의	자유주의	신학다시하기
해석의 열쇠	· 성서와 나 · 역사의식 배제	· 성서와 그들 · 철저한 역사의식	· 성서와 우리들 · 역사의식 and Beyond
예언 성취여부	· Not Yet	· Completed	· Completed and yet to be realized
이 일들, 표적	· 대환란(tribulation) · 마지막 때, Parousia	· 유대 전쟁 (66-73 C.E.)	· 지배체제와 다투는 삶의 현장 · 예) 지식층, 젊은 이들의 교회 이탈
그 날(들), 그 때	· 이 세상의 종말	· 예수의 세대	· 우리 세대—역사상 예수 안에서 identity를 찾는 모든이들

성전붕괴, 도망	· 소종파적 도피생활	· 무의미한 희생을 피하라	· 지배이데올로기와 운명을 같이하지 말라
멸망의 가증한 것 (=>단 9:27; 11:31; 12:11)	· 적그리스도 · 666 (계 13:18)	· 로마 군대, Antiochus IV (d. 164 BCE) · (=>제 1 마카비 1:54)	· 더러운 영 · 예수의 신학/기독교에 들어온 가짜/더러운 신학 (재물, 권력위주)
...이 가까이 온 줄을 (29 절)	· 인자가 옴=>재림 · 예언이 아직 성취 안됨=>고로, 기다림	· 예루살렘 성전 붕괴 · 예언의 성취 · 고로, 더이상 상관없음	· 시대를(시대의 표적을) 읽는 눈=> 신학하기의 출발점 ·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여전히 ...
그 날과 그 시	· 예수 강림(Parousia) · 마 24:36-39=>24:3	· The day of YHWH=> Judgment day · On that day=> 종말론적	· Undefined=> not to be defined · 늘 깨어 결단의 삶=> 날과 시— 기회주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님 (maybe thieves'=> 4 watches) · 현재의 삶에 충실
깨어 있으라	· 저 세상 가는 막차를 놓치지 않도록	· Preparedness (for what?) · 재림의 임박	· 주어진 삶/시간을 낭비함에 대한 경고

**** 종말론적 삶이란?

- 매 순간 결단의 삶=> 지배체제(쟁취, 승리)의 편에 설 것인가 혹은 예수의 뜻을 따라 상생의 삶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종말론적 삶은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림이 아니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에 초점 => 매 하루를 이 생의 마지막 삶처럼!
- 삶의 장수/부의 축적 (얼마나 많이=>quantity)이 초점이 아니라 그 가치/질(어떤, 어떻게=>quality)이 중요.
- 예수가 구름 속에서 영광과 권세로 임한다함은 당시의 언어=> 지금은 예수의 신학/삶/가르침이 지배이데올로기를 밀어내고 내가/우리가 사는 세상에 충만하여 행복을 만끽함을 표현.
- 결론. 종말론적 신앙은 (어느 체제/이데올로기 속의 특정그룹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히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예수는 그렇게 사셨고, 그의 “임하심”(마 24:36-39)/“부활”은 그런 삶/신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여기에 우리들의 신학다시하기와 근본주의/자유주의 신학의 차이가 있다.

Reflections:

1. 성전붕괴 선포에서 “성전”이 뜻하는 바는?
2.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고 말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